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름다운 중년
오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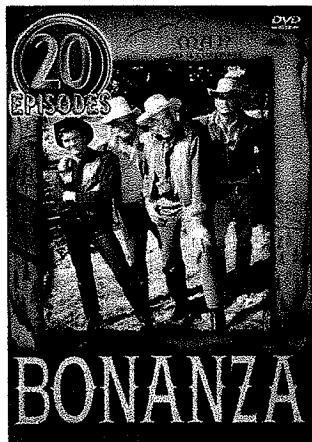
중년은 많은 색깔을 갖고 있는 나이이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분홍 추억이 생각나고
초록이 싱그러운 계절에도 회색의 고독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중년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본다.

중년은 많은 눈물을 가지고 있는 나이이다.
어느 가슴 아픈 사연이라도 모두 내 사연이 되어버리고
훈훈한 정이 오가는 감동 어린 현장엔 함께하는 착각을 한다
그래서 중년은 눈으로만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운다.

중년은 새로운 꿈들을 꾸고 사는 나이이다.
나 자신의 소중했던 꿈들은 뿌연 안개처럼 사라져가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꿈들로 가득해진다.
그래서 중년은 눈으로 꿈을 꾸고 가슴으로 잊어가며 산다.

중년은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되는 나이이다.
마주보며 살아온 사이 상대방의 성격은 내 성격이 되었고
서로 자리를 비우면 불편하고 불안한 또 다른 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중년은 눈으로 즐기면서도 가슴으로 이해하며 산다.

중년은 진정한 사랑을 가꾸어갈 줄 안다.
중년은 아름답게 포기를 할 줄도 안다.
중년은 자기주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래서 중년은 앞섬보다 한발 뒤에서 챙겨가는 나이이다.



◀그리운 날의 흑백TV▶ 보 난 자

베이스 기타의 빠른 선율 속에 네바다 주가 그려진 지도의 한 가운데에서 불꽃이 일어나 지도 전체를 사르며 시작되는 보난자. 그러면 카우보이 모자에 말을 타고 아버지와 3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부 개척당시이기에 사고로 죽었거나 인디언의 습격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게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릴 때는 인디언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생각했었죠). 서부개척당시 각기 다른 성격의 3형제와 큰 농장을 이루어 나가는 한 가족의 삶을 그려낸 “보난자”, 지금도 흑백을 아름다움으로 남게한 외화로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2월 12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0퍼센트의 믿음” 크레도 -



바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여유 있게 처리할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시관을 씌우므로 당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담당시키셨고, 당신의 머리에 성령을 부으시므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미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게 하시므로 당신이 이미 나음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난을 짊어지우셨으므로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므로 당신에게 이미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산을 옮길 만한 거자씨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실제로 담당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이미 당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픈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슬픔을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담당시키셨고, 성령을 통해 희락이 넘쳐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 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한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의심의 눈을 뜨면 세상에 갇히고
믿음의 눈을 뜨면
매 순간 기적을 느끼게 된다

◀인품따라 행하기▶

완벽한 남편이란
완벽한 아내이기를
기대하지 않는 아내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 화 와 소 원 을 위 한 기 도 Confession Pray		
용 서 의 선 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9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6 (시 15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360장	다 갈 이
기 도 Pray		김순자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3:1-10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능력있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91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 예배위원◆

◆2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 내
5	김교섭	이영성		<본당>노은숙 김순자
12	김순자	이재운		
19	김영길	이지형		<입구>정덕수 이재영
26	지천영	정성호		

주 일	예배와 모임
5	러시아합창단 방문 *남선교회(3) *구역예배(10)
12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여선교회(24) "여성만의 Heaven"
26	이삭줍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1. 교우소식

<등록하셔서 같보리 교우가 되심을 환영합니다>

*백문종, 조병희 집사(5선교회) 현우, 현준

☎416-6569 . 62 Marinaview Dr. West Harbour

*장문호, 이정미 집사(3선교회). 동준, 석준

☎416-2081 18 Wiseley Rd. Hobsonville

*황보 천, 안경아 집사(5선교회). 정은

☎09)420-7068 1/100 Kiwitahi Rd. Woohill. Helensville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14일(화) 오후 1시. 교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보다 중보기도에 능력의 역사하심을 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3. 청년부의 인도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토요일 귀국)

*교우들의 협조와 기도로 준비한 의약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치료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4. 정기당회. 예배 후 모입니다.

5. 수요예배: "민수기 성경강해" <수요일 저녁 7:30>

*제법 낮이 짧아졌지만 아직도 낮 기운이 조금은 남아있는 저녁입니다. 예배당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가십시오.

◀작한 시인▶ 思母曲(사모곡)

최중호

秋風漸寒思母重

忽然回頭我不感

至今幼少子去遠

母思念一天哭淚

가을바람 점점 추워지니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네.

문득 뒤돌아보니 나도 불혹이구나.

아직도 어린 자식 같 길은 아득하건만

어머니 그리워 하루 종일 흐느껴 우네.

이제는 달이 떠 있는 밤을 나서면 추석 그 날 밤처럼 서늘함이 있습니다. 가을의 온도는 여러 그리움들이 영글어져 있고 가을의 노래에는 애잔함들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 동네 풍경들이 가을의 낭만이라면 아비이면서 아들이고 어미이면서 딸인 우리들에게 가을속의 어머니는 애끓는 아픔입니다.

이렇게 그리움은 체감되는 온도로도 다가오는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손님입니다.